21세기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A Guide for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ollege/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김 성 수

고신대학교 총장

목 차

I. 기독교대학의 본질 | 235

II.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 237

III. 기독교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 과제 | 249

IV. 맺는 말 | 252

요약

21세기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세속적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구현하는 인재로 양성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기초와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비극을 볼 수 있다.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확고한 뿌리를 두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와 같은 대학의 핵심적 기능과 모든 활동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구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A Guide for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ollege/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주요어

기독교 대학,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개혁주의적 관점

Abstract

A Guide for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ollege/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Prof. Dr. Sung-Soo Kim

In the 21st Century where society is being ruled by secular humanism and relativism, Christian colleges/universities must show their reason for existence, and do their part in God's glorious calling of celebrating the Lordship of Christ over all of life, and in equipping people to know and share the amazing shalom of the kingdom in every sphere, as a deliberate expression of the good news that come through Jesus Christ. In the history of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we can see on many occasions the tragedy where some have lost their sound foundation or lost their identity as Christian academic communities. A Christian college/university celebrates its identity of being rooted in the Christian faith with Jesus Christ at the center. Christian faith is one that applies in all of life and has the power to guide, direct, and drive our whole life. Christian colleges must keep this faith as a sound foundation, and strive to develop continuously in its light. Christian colleges/universities want to be known as academic communities that are not ashamed of what they believe, but which know what they believe and which practise

academic excellence based on the unique insights and hope of the Christian faith for all of life.

Keywords | Christian College/University, Christian Identity, Christian World View, Christian Scholarship, Reformed Perspective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대학, 특히 진정으로 개혁주의적인 기독교대학을 소유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통제는 물론, [1] 급격하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세계의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빈약한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 [2] 교권의 위협, 그리고 빈약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수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3]

---

1)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대학들은 국가 권력의 교묘한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공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사립대학, 특히 기독교대학에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평가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들을 준공립화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초등 및 중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준공립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나 화란 등 선진제국의 경우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국공립대학에만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운용하던 교직프로그램까지도 평가 제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기독교세계관에 충일해 있어야 한다. 특별히 대학의 종교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들은 기독교대학이 무엇이며,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독교대학들의 경우는 교수들과 이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

3) 미국 칼빈대학(Calvin College)의 코넬리우스 플랜틴가 교수는 기독교대학을 시작하는 것과 기독교대학을 잘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독교대학을 설립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청교도들이 설립했지만 지금은 설립정신을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하버드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기독교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Cornelius Plantinga, *Engaging God's World*, Wm. B. Eerdmans Pub. Co., 2002, 오광만 옮김, **기독지성의 책임**, 서울: 규장. 2004, pp.17-18).

I. 기독교대학의 본질

흔히들 기독교대학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대학은 '신앙의 공동체'(faith community)인 동시에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라고 한다. 기독교대학이 신앙의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만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슬람대학이나 불교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faith-based community)이다.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인 존재(religious being)이다. 모든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거짓된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적 존재(worshipping creature)다.[4] 문제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다.[5]

기독교대학도 다른 일반 대학들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을 전인격적으로 양육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잘 봉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4) 행 17:26-27

5)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논하고 있는데, 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신(들)을 섬기고 있다. 2. 모든 사람은 그 신의 형상으로 변한다. 3. 인류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회 구조를 만들고 형성한다(Bob Goudzwaard,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Ontario, Canada: Wedge Pulishing Foundation, 1975. pp.14-15). cf. Bob Goudzwaard,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 Press. 1984(김재영 옮김, **현대.우상. 이데올로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87). cf. Paul Marshall, *Heaven is Not My Home*.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김재영 옮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서울: IVP, 2000. pp.209-227).

도 다른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세속화된 일반대학 또는 이슬람대학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대학들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그들 자신의 종교적 선입견(pre-conceived religious perspective)의 틀을 가지고 접근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왓손(D.M.S. Watson)은, 자신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창조(creation)라고 하는 다른 유일한 대안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 저명한 포스트모던 학자인 로티(Richard Rorty) 역시, 대부분의 세속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와 여타의 주요한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목전에서 바보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7]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우리는 오늘날의 세속화된 대학의 학문과 교육활동에서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편견(anti-God bias)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학문과 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편견(pro-God bias)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종교적으로 중립적(religiously neutral)인 관점이나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종교적인 중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이와 같은 관점과 헌신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다.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신앙적 전제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학문적이며 교육적인 활동의 질을 결단코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6) D.M.S. Watson, *Adaptation*, London, UK: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29. cf. Lewis, C.S., *The weight of glory*, New York: Harper Collins, 1949. rep. 2001. p.136.

7) Richard Rorty, *Universality and truth*, In Robert B. Brandom (ed.), *Rorty and his Critics*, Oxford: Blackwell Press, 2000. pp. 21-2.

상이한 신앙적 전제를 토대로 하는 모든 학문과 교육이 질적 수월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기독교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들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감당하고자 노력한다. 어떤 그리스도인 논평자가 표현한바와 같이, 기독교대학은 '태양'(sun)/'아들'(Son)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기독교대학은 오히려 이 '태양'(sun)/'아들'(Sun)이 제공해 주는 빛의 조망 하에서 대학의 모든 기본적 사명을 수행해 갈 뿐이다.[8]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며 지고한 소명이다.[9] 그러나 기독교대학이 만약 협의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기독교신앙의 전수만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분명 미흡한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법칙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이다.

Ⅱ.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1. 기독교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권의

8) Dabney, R.L.(nd), *On secular education* (Moscow, ID: Ransom Press), and Wilson, W. *The Biblical antithesis in education.* 2012. p.4. (www.cambridgestudycenter.com<http://www.cambridgestudycenter.com/<http://www.cambridgstuycenter.com/>>).

9) 마 28:18-20.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야 하며, 기독교대학 자체의 중핵적 사명과 비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사회에는 가정, 학교, 교회, 정당 등 여러 사회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은 창조질서에 속하는 제도이며, 여타의 모든 제도들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들은 각각의 영역 안에서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아래서 일방적 지배나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각자의 독특한 과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국가나 교회, 또는 사회의 기타 여러 기구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가 아니라 대학이다. 교육은 교회나 국가의 부당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10] 그것은 교육이 세속적으로 합리적이 되거나 단순히 자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영역으로 하여금 제도교회의 독특한 권위와 활동, 그리고 책임과는 구별되며 또한 정치적인 영역이나 활동과도 확실히 다른 영역과 기능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과학적이며 지성적인 탐구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

10)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설립한 화란의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아래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Church)와 '국가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government)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대학은 외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사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도교회가 이를 부당하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기독교대학은 성경적으로 신실한 세계관의 관점에서 교육과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교육과 학문을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사회의 문화와 학문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다. 대학의 중추적인 활동이 종교적 중립성의 관점에서부터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대학은 지성의 영역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종교적 신앙이 사실상 핵심이며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불교,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모두 공통의 근거 위에서 만나 공통이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세속적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21세기 사회의 이와 같은 세속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위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이란 일반대학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몇 가지 기독교적 활동들을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의 대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신앙지도 전담

교목과 경건회가 있고, 종교적인 특강 정도만 있으면 대학의 방대한 교육과정(curriculum)이 세속적 일반대학과 꼭 같은 방식으로 편성되고 가르쳐 진다고 해도 여전히 그 대학을 좋은 기독교대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교육이 아니며 기독교적인 대학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첨가적 접근'('icing on the cake') 멘탈리티에 불과할 따름이다.

오늘날 북미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소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대학과 학문단체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대학과 단체들도 거의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 또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에 대한 헌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용되는 '통합'(unity)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다 같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중립적인 과학적 사실'(neutral scientific fact)에다가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 '기독교적인' 교육이란 고작 전통적인 세속 학과에다가 필요한 신학 과정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추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속적 연구의 사실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포장해 주는 정도에서 만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에는 기독교 신앙이란 본질상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와는 적절성이 없으며, 기독교 신앙은 단지 소위 '영적인' 문제('spiritual' matter)와 내세의 삶에 대해서만 적절성이 있다는 잠재의식적 관점이 심어지고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세속적 세계관은 심지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기독교대학이나 기관에서도 성공적으로 심어지고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독교대학은 소위 "중립적"인 사실(neutral facts)에 기독교적인 가치(Christian values)를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한다. '중립적인 사실'(neutral fact)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1+1 = 2"라고 말하는 것도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헌신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소위 '중립적'이거나 이원론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참되게 성경적인 교육과 학문을 소유할 수가 없다. 진정한 기독교대학은 과학적 사실에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한다던가 성경과 과학을 "조화"(harmonizing)시키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과학자"(the scientist viewing science through the spectacles of Scripture),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the scientist engaging in scientific activ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더 좋아한다.

세속적인 일반대학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틀을 통하여 교육과 학문 활동을 추구해가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독교대학은 대학의 모든 기능과 활동들을 형성해 주는 기초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고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과 학문의 내적이며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지고한 소명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신실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 과학자, 기독교인 역사가,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자신의 학문 활동에 있어서 성경적인 규범적 원리의 인도함을 계속적으로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과업은 계속적인 과업이다. 우리의 교육과 학문 활동은 계속적으

로 기록된 말씀의 개혁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인 관점(Christian perspective)에서 창조세계의 다양한 구조와 조직을 조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지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부언하지만,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러한 학과목의 가르침에 기독교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추가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고 학문 자체를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소명과 역할에 신실할 수 있다.

기독교적 헌신의 일반적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에 단순히 스며드는 정도로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각 학문을 형성하는 종교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모든 강의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의 가르침을 종교과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11]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내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지키면서 학문 자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구성원들의 동일한 세계관의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11) 모든 개별 학문을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중압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창조를 불완전하게 보는 잘못된 전제는 기독교 학문 분야에서 성경적인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음악'이라는 말은 기독교 하부 문화에서 성공을 꿈꾸는 이류 예술가들을 위한 핑계일 때가 종종 있는데, 기독교 하부 문화는 고유한 시상식 환경과 톱스타를 포함한 일반 연예계의 현란함과 화려함을 모방한다(Michael Horton, *Where in the world is the Chruch?* Phi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5(윤석인 옮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pp. 13-14).

세계관은 인간 활동의 근본적 기초이며 방향잡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공동체의 통일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증거와 그 공동체가 성취해야 하는 목적을 훼파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일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학보하고 있어야 한다. 카이퍼(Abraham Kuyper)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은 일관되고 통합적인 세계관 즉, 강력한 기독교적 삶의 체계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이것은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성경적으로 신실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추구와 실천에 충일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수진은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과 매일매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주일 성수, 예배, 봉사 등의 경건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학문공동체 안의 여타 활동 속에서 교수들은 일관된 기독교적 관점을 견지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학생들이 잘 양육되면 그들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2]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을 전수'(informing) 해 줄 뿐만 아니라 '형성하는'(forming) 일을 한다.[13]

---

12) 눅 6:40

13) J.K. Smith, *Desiring the Kingdom -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p.26.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기독교적 신앙과 관계 지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변증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목의 특색을 희석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경건성과 온전한 학문성을 겸비하고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기독교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Christian scholar)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전공 영역에 대한 세계관적이며 심오한 철학적 이해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고백적인 신앙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창조 영역(세계/자신의 전공 영역)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협력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부단히 요구한다. 이것은 세속적 전제나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교수방법(culturally-determined pedagogy)의 한계나 제약을 뛰어 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단계로의 성장은 협동적이며 장기적인 교수 개발 프로그램과 활동에 우선권을 둠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만약 교수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을 신실하게 탐구하고 가르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마음의 헌신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대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다.[14]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수 채용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자신의 학문과 교육적 활동을 성경적 세계관의 조망

14) 물론,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 교수라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교수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전공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에서 탐구하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교수, 아니면 이러한 과업에 적어도 마음이 열려있는 교수를 신중하게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바로 이점에서 대학 행정가들에게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있게 되며 많은 희석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교수 임용이 흔히 큰 압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어떤 분야에는 지원자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학과운영을 위해 즉각적으로 공백을 채워야 할 압박감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압력이 있을 수 도 있다. 즉 그 학과의 학문적 위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하에서 운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수들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대학의 특색을 대가로 치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수가 없는 당혹감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면학과 알찬 신앙적, 인격적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이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하신 일생의 과제를 찾도록 힘쓰며 그 찾은 일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직원 역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학교의 일상생활은 행정직원에 의해서 영위되며,

또 많은 점에서 행정직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독특하면서도 일관되게 성경적 증거에 신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은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비시킴에 있어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 직원들은 방관적 무관심과 편의주의적 안일성, 또 사무적 냉랭함을 버리고 자신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그의 나라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장되어 감을 확신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와 감사가 있는 성실과 기쁜 마음의 섬김으로 그 과업에 임해야 한다. 만약 행정직원이 기독교적 증거에 실패한다고 하면 대학의 기독교적 특색이 희미해지게 된다. 기독교대학의 교직원들이 성경적으로 역동적인 방법으로 행정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기독교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캠퍼스를 가꾸어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행정직원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모든 다양한 직분들은 그 직분에 적절한 가치와 권위와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일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는 반드시 헌신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대학의 제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교수요원과 행정직원들을 채용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모든 활동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인 종교적 방향성(religious direction)을 분명히 하고, 교육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과 설비들을 공급하며, 학교의 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격을 구비한 자들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의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충일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 적용하고 이런 관점을 보급해가는 책임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4.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positive)인 자세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15]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은 온실처럼 세상과 여타 다른 교육 기관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대학의 과업은 창조세계에 대한 탐구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리와 신앙을 주입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과업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서[16]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15) 한국 찬송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사하는 찬송이 많이 있다. 마이클 호톤 역시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나는 찬송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유명한 두 찬송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져 고개를 갸웃거리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그 중 한 곡은 '이 세상은 나그넷길 나는 다만 나그네' 였고, 다른 한 곡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었다. 나는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인데 '내가 다만 나그네'인 이유가 궁금했다"(Michael Horton, *Ibid.*, p.10).

16) 요 3:16

서 양육하는 것이다. 성경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17] 첫째는, 세상의 죄악된 측면, 특별히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 세워 놓은 질서를 가리킨다.[18] 둘째는, 영토나 지역을 가리킨다.[19] 셋째는, '창조된 질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지으신 세상이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며 앞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세상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20]오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21세기 사회의 모든 문화적 우상들을 거부하고 학생들을 '지역적'(local)이면서도 '지구촌적'(global)인, 그리고 물리적(physical)이면서도 가상적(virtual)인 섬김의 일꾼으로 구비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이며 모든 학문활동이 종교적이라면, 기독교적 학문만이 유별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공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수용하여 학문의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대학이 제기해야 하는 유일하게 참된 질문은 어느 신앙을 기초로

17) Paul Marshall, *Ibid.*, pp. 36-37.
18) 롬 12:2
19) 마 24:14
20) 요 3:17

삼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학문(과학)(religion and science) 또는 신앙과 학문(faith and learning)이 아니라 종교 대 종교, 과학 대 과학, 신앙 대 신앙, 학문 대 학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Ⅲ. 기독교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 과제

1.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헌장은 특정 개인이나 위원회의 탁상공론적인 추상적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고백적 신념으로 정교화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적인 고백적 관점(educationally confessional stance)은 학문적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자유를 위한 한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21]

2. **기독교대학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은 그 자체가 대학의 학문적 활동과 여타 모든 활동을 형성하는 중핵적이며 지속적인 핵심 요소다.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은 분리되고 고립된 실체나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21) cf. *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Dordt College, 1979.

과 방법 전체를 통해 풍부하게 스며들고 풍겨나는 향취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22]

기독교대학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칼빈(J. Calvin), 바빙크(H. Bavinck), 카이퍼(A. Kuyper), 볼렌호븐(D.H. Th. Vollenhoven), 도예베르트(H. Dooyeweerd) 및 기타 여러 나라의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의 정신을 건설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이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하면서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일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지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수-학습, 그리고 참된 '영성의 옥토', 예컨대 자유, 분별, 희망, 확실성 등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기독교대학에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Teaching Christianly), 연구,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한다.[23]

---

22) cf. Harro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Seattle, Washington, Alta Vista College Press, 1994.

23) cf. 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Sioux Center, IA: Dordt Press, 2000(김성수 옮김,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2003). John Van Dyk, *Letters to Lisa: Conversations with a Christian Teacher,* Sioux Center, IA: Dordt Press, 1997).

5. 기독교대학은 삶의 여타 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아,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24]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공동체 일반에서 순종적인 규범 실현의 동시성을 기대할 수 있다.

6. 기독교대학의 모든 내적 구조(학문 활동, 교수활동, 교육과정, 행정 등)는 창조 실재에 대한 통합적이며 언약적 관점을 내포하고 반영해야 한다.

7. 기독교대학은 그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기독교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전 세계의 자매기관들과의 밀접한 협동적 노력을 격려하고 조장해야 한다.

8.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9.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대학은 교회지도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독교고등교육기관 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학

24) 예를 들면,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교수개발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이 비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 성경학교, 또는 신학교는 분리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대학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권주의의 위험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Ⅳ. 맺는 말

인본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대학은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표명하면서 기독교대학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라는 확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리거나 아니면 학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신앙은 삶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신앙은 주일 하루 또는 인간 삶의 어느 한 영역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며 동기 지우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그 확고한 기초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의 학문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도 더 낳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모습을 상기할 때 항상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 협의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의 경건을 강조하는 소리만이 연상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언제나 독특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학문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 왕을 위하여'

Pro Rege (For the King)

참고문헌

Dabney, R.L. *On secular education,* Moscow, ID: Ransom Press, n.d.

Dordt College. *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Dordt College, 1979.

Goudzwaard, Bob.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Ontario, Canada: Wedge Pulishing Foundation, 1975.

_____.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 Press. 1984(김재영 옮김, **현대.우상. 이데올로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87).

Horton, Michael. *Where in the world is the Chruch?* Phi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5(윤석인 옮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Lewis, C.S., *The weight of glory*, New York: Harper Collins, 1949. rep. 2001.

Marshall, Paul. *Heaven is Not My Home*.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김재영 옮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서울: IVP, 2000).

Plantinga Jr., Cornelius. *Engaging God's World*, Wm. B. Eerdmans Pub. Co., 2002 (오광만 옮김, **기독지성의 책임**, 서울: 규장. 2004.

Rorty, Richard. *Universality and truth*, *In* Robert B. Brandom (ed.), *Rorty and his Critics*, Oxford: Blackwell Press, 2000.

Smith, J.K. *Desiring the Kingdom -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Van Brummelen, Harro.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Seattle, Washington, Alta Vista College Press, 1994.

Van Dyk, John.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Sioux Center, IA: Dordt Press, 2000(김성수 옮김,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2003).

_____. *Letters to Lisa: Conversations with a Christian Teacher,* Sioux Center, IA: Dordt Press, 1997.

Watson, D.M.S. *Adaptation*, London, UK: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29.

Wilson, W. *The Biblical antithesis in education.* 2012. www.cambridgestudycenter.com <http://www.cambridgestudycenter.com <http://www.cambridgstuycenter.com